

 <b>한국소비자원</b> Korea Consumer Agency	<h1>보도자료</h1> <p>“소비자 주권 시대를 열어가는 국민의 기관”</p>	 페이스북 @kcanews  인스타그램 @kca.go.kr
이 자료는 <b>10월 7일(수) 조간부터</b>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인터넷 매체는 10월 6일(화) 12시]		
배포일	2020년 10월 5일(월) (총 13쪽)	담당부서 안전감시국 생활안전팀  담당자 김병법 팀장 (043-880-5831) 백민경 과장 (043-880-5832)

## 반려동물 동반 가능 대형 쇼핑몰 안전관리 강화 필요

- 일부 시설 안내문 미흡, 이용자 중 38.4%는 반려견에 의한 피해·불편 겪어 -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반려견의 동반을 허용하는 대형 쇼핑몰이 늘어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회숙)이 반려동물의 동반이 가능한 수도권 소재 대형 쇼핑몰 9개소\*를 대상으로 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용 안내문이 없거나 안내 내용이 미흡해 개물림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시설(개소) : 스타필드(3), 롯데프리미엄아울렛(3), 신세계사이먼프리미엄아울렛(2), IFC몰(1)

### □ 반려동물의 동반이 가능한 일부 대형 쇼핑몰, 출입구 안내문 설치 미흡

조사대상 9개소 중 4개소(44.4%)의 주출입구에는 반려동물 동반과 관련한 안내문이 없어 이용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기 어려웠고, 안내문이 있는 5개소(55.6%)에도 견주의 연령제한, 동반 가능한 반려견의 수,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시설의 연락처 안내 등이 미흡했다.

※ 반려동물의 동반이 가능한 미국의 일부 쇼핑몰 안내문에는 18세 이상인 1명의 견주가 3마리까지의 반려견을 동반할 수 있다는 규정과 관리부서의 연락처가 표기되어 있음.

또한, 쇼핑몰에 입주한 상점들은 반려동물 출입과 관련한 규정을 안내하고 있었으나 9개소 중 6개소(66.7%)에서는 투명한 유리에 흰색의 작은 스티커만 부착하거나 이용자 눈높이에 벗어난 곳에 스티커를 부착해 이용자들이 이를 인지하기 어려웠다.

주출입구 반려동물 동반 안내문 부착 사례	상점의 반려동물 출입규정 스티커 시인성 미흡
	 

해당 시설에는 쇼핑·놀이·문화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어린이를 동반한 이용객이 많은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려동물 동반 관련 안전규정, 안내문 설치 의무 등을 담고 있는 공통적인 가이드라인의 마련·보급이 필요하다.

#### □ 쇼핑센터 이용자의 38.4%는 타인의 반려견에 의해 피해·불편 겪어

반려동물의 동반이 가능한 대형 쇼핑센터에 방문한 경험이 있는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92명(38.4%)은 타인의 반려견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피해·불편을 겪거나 관련 사례를 목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타인의 반려견에 의한 이용자 피해 · 불편 경험(복수응답) ]

구분	응답수(명)		비율(%)	
타인의 반려견에 의해 직접적인 피해나 불편을 겪지 않았고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것을 본 적이 없음	308		61.6	
다른 이용자가 타인의 반려견으로 인한 피해 또는 불편을 겪는 것을 본 적이 있음	192	106	38.4	21.2
내가 직접 타인의 반려견으로 인한 피해 또는 불편을 경험한 적이 있음		62		12.4
나의 일행이 타인의 반려견으로 인한 피해 또는 불편을 경험한 적이 있음		41		8.2

#### □ 시설 내 펫티켓 미준수 이용자의 인식 제고 필요

조사 대상 대형 쇼핑센터 9개소를 방문한 반려견 217마리와 건주의 시설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반려견(211마리, 97.2%)이 목줄을 착용하고 있었으나 ‘어린이가 반려견을 통제’하거나 ‘목줄을 과도하게 길게 늘어뜨려 이용’하는 등의 펫티켓 미준수 사례가 25건(11.5%)에 달해 반려견의 돌발행동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었다.

[ 시설 내 반려견 동반 이용 펫티켓 미준수 사례 ]

구분	반려견 수
어린이가 반려견을 통제	6
목줄을 과도하게 길게 늘어뜨려 이용	4
상점 출입규정 위반	4
식품관련시설 접근 및 이용	3
반려견 방치	3
휴게시설 규정 위반	3
수경시설 접근	1
에스컬레이터 직접 탑승	1
합계	25(11.5%)/2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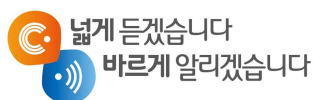
\* 조사 대상 대형 쇼핑센터 9개소를 방문한 반려견 217마리 대상

다중이용시설 내 반려동물의 통제·관리 의무는 건주에게 있으므로, 반려동물 동반 시 시설의 안전규정과 펫티켓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이용자의 인식 제고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대상 시설에 우선 적용 가능한 ‘반려동물 동반 관련 안내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안전규정 보완(안내문 추가·확대설치 및 시인성 보완 등)을 권고했다.

\* [붙임 2] ‘대형 쇼핑센터의 안전한 반려동물 동반을 위한 안내 가이드라인’ 참고

아울러, 대형 쇼핑센터 내 개물림 사고의 효과적 예방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형 쇼핑센터에 대한 반려동물 동반 관련 안전 가이드라인의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ca.go.kr](http://www.kca.go.kr)



※ 한국소비자원은 ‘국민참여혁신 제안방’을 통해 기관 운영과 관련한 국민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기관대표 누리집([www.kca.go.kr](http://www.kca.go.kr)) 접속을 통해 제안·참여 가능]

## < 붙임 1> 반려동물 동반 가능 다중이용시설 안전실태조사 결과

### 1 일반 현황

#### 가. 조사 배경

- (배경)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시대의 도래로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팸족(Pet과 Family가 합쳐진 신조어)’ 인구가 확산되고 여가시설에 대한 반려동물 동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개물림 안전사고도 늘어남\*\*.

\* 2019년 국내 반려동물 양육률은 26.4%, 양육 가구는 인구통계 대비 약 591만 가구로 추정되며, 2019년 반려동물 양육률은 전년 대비 약 2.7%p 상승함.('2019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2019.11.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개물림 사고 병원이송 환자현황(소방청, 2019. 2) : (2016년) 2,111명 → (2017년) 2,404명 → (2018년) 2,368명

- (동반허용 현황) 백화점·마트 등은 안전 및 위생 문제를 우려하여 시각장애인 안내견과 케이지 내 동물을 제외한 기타 반려동물 출입을 제한하고 있었으나, 2016년에 처음 목줄 착용 반려견의 출입을 허용하는 복합쇼핑몰이 생긴 후 점차 관련 시설이 늘어나는 추세임.

#### 나. 관련 법규

- (「동물보호법」)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맹견의 종류(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5종, 시행규칙 제1조의2), 동물등록 의무대상(동법 제2조제2, 시행령 제3조), 인식표 부착(동법 제13조제1항, 시행규칙 제11조)과 목줄 착용 의무(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배설물 수거 의무 등(동법 제13조제2항)을 명시함.

- (「민법」, 「형법」, 「경범죄처벌법」) 개물림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 개물림 피해자의 상해·사망 여부에 따른 과실치상·과실치사죄, 벌금형 등을 규정

※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및 267조(과실치사), 경범죄 처벌법 제3조1항25(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26호(동물 등에 의한 행패 등)

#### 다. 반려동물 동반 가능 대형 쇼핑센터 시설규정

- 목줄(리드줄)을 착용한 반려동물 동반 가능 쇼핑시설에 대한 법적 안전기준은 없으며, 업체별로 관련 규정을 자체적으로 정해 적용하고 있음.

○ 쇼핑시설마다 세부 규정(목줄의 길이, 입장 가능 조건 등)에 차이를 보임.

※ (시설 간 주요 공통규정) 반려동물 목줄 착용 및 케이지 이용 의무, 「동물보호법」에 의해 지정된 맹견의 출입 금지, 동반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의무 및 미접종시의 과태료 안내, 반려견 배설물 처리 의무, 일부 매장의 반려동물 출입 제한 사전 안내 등

## 목줄(리드줄) 착용 상태로 반려견 동반이 가능한 복합쇼핑몰 안내문 사례

### 똑똑!한 배려 ddogdog

반려동물이 입장할 수 있는 쇼핑몰입니다.  
모두의 안전과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해주세요.

예방접종이 완료된 개와 고강자에 한해  
리드줄과 케이지를 준비하고 출입합니다.

다른 고객의 안전을 위해 리드줄 길이는  
1.5m 이내로 고정해 주세요.

배설물은 에스컬레이터 주변에 비치된  
배변봉투와 물티슈로 깨끗이 처리해주세요.

고객 휴게를 위하여 반려동물이  
울라가지 않도록 교육해주세요.

고객의 안전을 위해 다음 건물은 출입되지 않습니다. (동물 보호법상 지정된 행선 및 추가 3종)

| 도서관 | 어린이관 | 동물테리어 | | 아메리칸스테이크 하우스 테리어 | 스테이크 하우스 테리어 | 로프트빌라 |  
| 도고 | 아로한티노 | 필라 브라운리 | | 일곱개의 달 | 일곱개의 달 | 그 밖의 시설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

동물 보호법 및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리드줄 미착용 및 광견병 예방접종 미실시 시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비반려인도 지켜주세요!

● 반려동물이 아무리 예뻐도 함부로 쓰다듬지 마세요. 보호자의 허락없이 만지는 행동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 반려견 동반 출입안내

은 쇼핑몰 내 반려견의 동반출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안전과 반려견의 올바른 문화 정착을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 광견병 예방접종이 완료된 10kg 이하의 반려견에 한해 입장이 가능합니다
- ❖ 반드시 케이지나 유모차 또는 목줄을 착용하고 입장해 주세요
- ❖ 케이지 미자참시 반드시 C홀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주세요
- ❖ 다른 고객의 안전을 위하여 목줄은 1m 이내로 조절해 주세요
- ❖ 배변 발생 시 쇼핑몰 내에 비치된 배변 봉투를 이용해 깨끗이 처리해 주세요
- ❖ 마킹 하는 반려견은 반드시 매너벨트를 착용 해 주세요
- ❖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반려견은 입장이 불가 합니다
- ❖ 반려견 돌발행동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발생 시 견주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2 이외 무관합니다
- ❖ 반려견이 이용객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쇼핑몰에서 퇴거 조치합니다
- ❖ 건물 및 시설물 등을 반려견이 훼손하는 경우 견주에게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 단, 아래 명견은 고객의 안전을 위해 출입이 제한됩니다

도사견, 핏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마스티프, 라이가,  
오브차카, 울프독, 캥갈과 유사한 견종 및 그 잡종

동물 보호법 및 관련 법률, 정부정책 등에 의거하여 광견병 예방접종과 애견견 등록이 완료된 반려동물에 한해 입마개제고 40cm 이상인 개에 한함/목줄 착용 또는 케이지 동반시 출입이 가능합니다

## 라. 해외

□ (시설규정) 대부분의 국가에서 쇼핑시설의 반려동물 동반 허용 및 동반 형태(목줄 착용, 케이지 사용 등)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특히, 야외형 프리미엄 쇼핑센터 등의 대형 쇼핑센터는 시설 내에 입점한 상점의 운영 정책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 허용 여부를 정하도록 함.

□ (시설현황) 미국의 경우, 텍사스의 오스틴(Austin)에 총 28개소, 애리조나의 스코츠데일(Scottsdale)에 17개소, 피닉스(Phoenix)에 13개소의 반려견 친화적 쇼핑센터\*가 있음.

\* 'The Most Dog-Friendly Cities in America (2019)', 미국금융정보제공회사 스마트에셋(SmartAsset)

### 미국 내 반려견 친화적 도시 조사 결과

The Most Dog-Friendly Cities in America

Rank	City	Score	Score	Score	Score
1	San Francisco, CA	4.5	4.5	4.5	4.5
2	Seattle, WA	4.4	4.4	4.4	4.4
3	New York City, NY	4.3	4.3	4.3	4.3
4	Portland, OR	4.2	4.2	4.2	4.2
5	Denver, CO	4.1	4.1	4.1	4.1
6	San Diego, CA	4.0	4.0	4.0	4.0
7	Los Angeles, CA	3.9	3.9	3.9	3.9
8	Chicago, IL	3.8	3.8	3.8	3.8
9	San Jose, CA	3.7	3.7	3.7	3.7
10	San Antonio, TX	3.6	3.6	3.6	3.6
11	Phoenix, AZ	3.5	3.5	3.5	3.5
12	San Francisco, CA	3.4	3.4	3.4	3.4
13	San Francisco, CA	3.3	3.3	3.3	3.3
14	San Francisco, CA	3.2	3.2	3.2	3.2
15	San Francisco, CA	3.1	3.1	3.1	3.1
16	San Francisco, CA	3.0	3.0	3.0	3.0
17	San Francisco, CA	2.9	2.9	2.9	2.9
18	San Francisco, CA	2.8	2.8	2.8	2.8
19	San Francisco, CA	2.7	2.7	2.7	2.7
20	San Francisco, CA	2.6	2.6	2.6	2.6
21	San Francisco, CA	2.5	2.5	2.5	2.5
22	San Francisco, CA	2.4	2.4	2.4	2.4
23	San Francisco, CA	2.3	2.3	2.3	2.3
24	San Francisco, CA	2.2	2.2	2.2	2.2
25	San Francisco, CA	2.1	2.1	2.1	2.1
26	San Francisco, CA	2.0	2.0	2.0	2.0
27	San Francisco, CA	1.9	1.9	1.9	1.9
28	San Francisco, CA	1.8	1.8	1.8	1.8
29	San Francisco, CA	1.7	1.7	1.7	1.7
30	San Francisco, CA	1.6	1.6	1.6	1.6



## 조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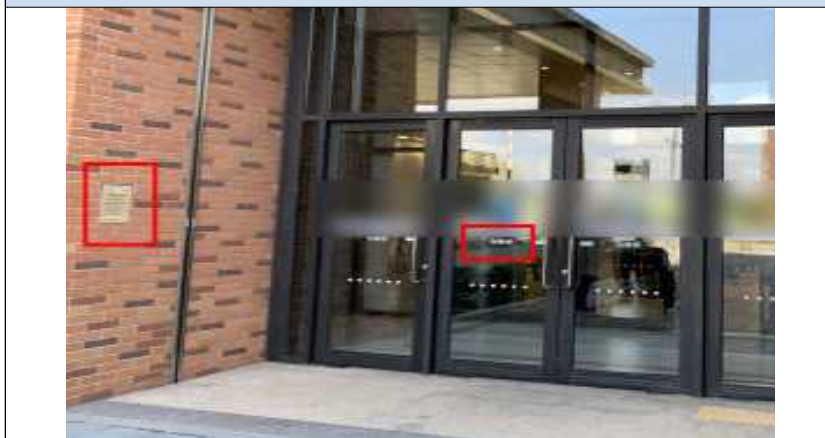
- **조사대상** : 서울경기 내 반려동물 동반 이용이 가능한 대형 쇼핑몰 9개소  
 ※ 개에게 목줄을 채운 상태에서 시설 공용부(중앙 통로, 광장 등) 이용이 가능하며, 홈페이지 및 시설에 설치된 안내문을 통해 반려견 동반 가능 사실이 확인되는 시설 대상임.
- **조사내용** : 시설 출입구의 반려동물 동반 관련 안내문 유무 및 내용, 입점 상점의 반려동물 출입 안내문 유무, 식품관련시설·어린이 놀이시설·수경시설·휴게시설·층간 이동수단의 반려동물 이용규정 관련 안내문 유무 및 설치된 안내표지 일체의 시인성

- **(주출입구\* 안내문)** 조사대상 9개소 중 4개소(44.4%)에는 반려동물 동반 관련 안내문이 없었음.

\* 시설 외부의 주차장·버스 정류장 등에서 시설 부지로 진입하는 구간의 출입구(지상 기준)

- **(시인성)** 시설 주출입구에 안내문이 설치된 5개소와 시설 내 별도 쇼핑 건물 출입구에 안내문이 설치된 3개소의 안내문 시인성은 모두 양호했음.
- **(안내문 내용)** ‘반려견 동반방법’, ‘입장 가능 반려견 조건’, ‘광견병 예방접종 필요 고지’ 등 안내문의 주요 내용들은 대부분 유사했으나 일부 세부항목(목줄 제한 길이 등)에 차이가 있었음.
- **(미흡점)** ‘1명의 견주가 함께 동반 가능한 개의 마릿수’, ‘반려견을 직접 관리하는 견주의 자격(연령)제한’, ‘반려동물 관련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을 위한 시설 관리부서 연락처 및 대응방법’을 안내한 시설은 없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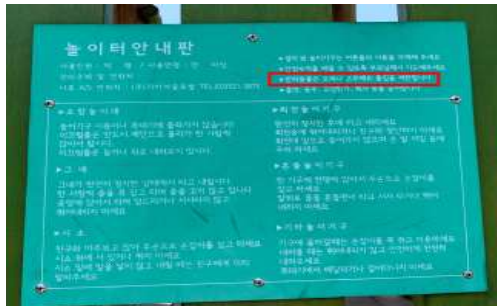
주출입구 안내문 부착 사례



- (상점) 9개소 모두 입점한 상점의 바닥부나 출입문 옆 벽면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반려동물 출입 가능여부를 안내함.
- (시인성) 출입문 옆 유리벽 또는 하단 등에 작은 스티커를 부착해 표기한 6개소는 바닥부에 스티커를 크게 부착한 3개소보다 시인성이 미흡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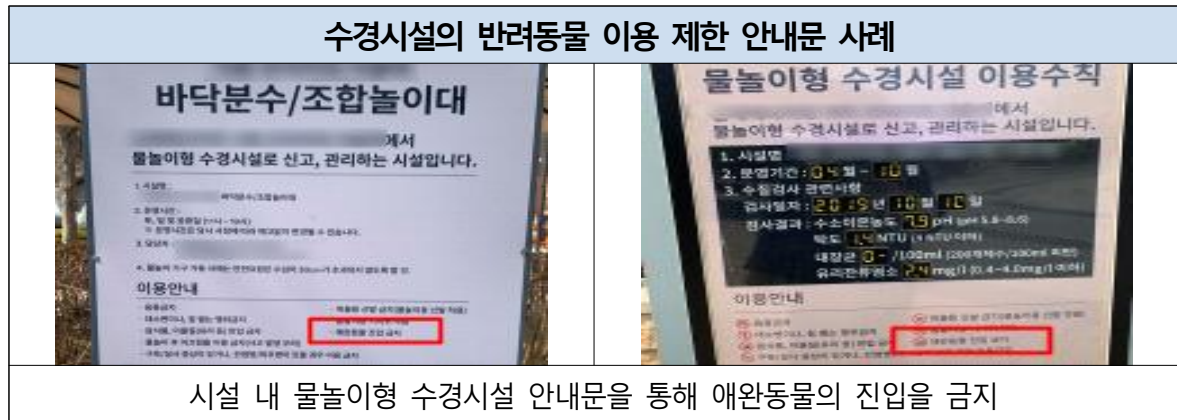
반려동물 동반 관련 안내스티커 시인성 미흡 사례	
	
반려동물 동반 여부를 표시하는 스티커가 안내판에 의해 가려짐	상점의 내·외부에 설치된 광고판으로 인해 반려동물 동반 안내표지 시인성 저하

- (식품관련시설) 9개소 중 8개소(88.9%)가 시설 내 푸드코트에 반려견 출입 불가 표시를 하고 있었으나 1개소(11.1%)는 해당 안내가 없었음.
- (시인성) 8개소 모두 이용자 시선 높이의 유리문 및 바닥부에 안내 스티커를 설치하여 시인성이 양호했음.
-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 놀이시설이 설치된 6개소 중 3개소(50.0%)에는 반려동물 출입 제한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3개소(50.0%)는 없었음.
- (시인성) 안내문이 설치된 3개소의 경우에도 이용수칙을 안내표지판에 작은 글씨로 기재하여 시인성이 미흡했음.

어린이 놀이시설의 반려동물 이용제한 안내문 사례	
	
미끄럼틀 등이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애완동물 이용을 제한함을 안내	고무매트가 깔려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반려견 이용을 금지하는 안내

□ (수경시설) 시설 내에 수경시설이 있는 5개소의 7개 수경시설(호수·물놀이 시설·분수) 등을 조사한 결과, 2개소의 2개 시설만 반려동물의 출입·이용 금지를 안내하고 있었고 4개소의 5개 수경시설에는 해당 안내가 없었음.

○ (시인성) 반려동물 출입·이용을 금지하는 2개소 2개 시설은 안내문에 관련 내용을 작은 글씨로 기재하고 있어 시인성이 미흡했음.



□ (휴게시설) 9개소 중 4개소(44.4%)는 방문객 휴게장소에 시인성이 양호한 안내문과 바닥 스티커를 설치하여 반려동물 이용 제한을 안내했으나 나머지 5개소(55.6%)는 해당 안내가 없었음.

※ 방문객 휴게시설의 반려동물 이용제한 여부는 시설별로 다를 수 있음.

## □ 층간 이동수단

○ (에스컬레이터) 9개소 중 4개소(44.4%)에는 반려견을 안고 이용(3개소) 하거나 반려견의 에스컬레이터 이용을 금지(1개소)하는 안내문이 있었으나 5개소(55.6%)에는 해당 안내문 표시가 없었음.

※ 반려동물의 에스컬레이터 이용규정은 시설별로 다를 수 있음.

- (시인성) 4개소 중 3개소는 기둥형 안내표지판이나 바닥 스티커를 설치해 반려동물의 이용금지를 안내했으나, 1개소는 에스컬레이터 상·하행부 사이의 빈 공간에 작은 입간판형 표지판만 설치하여 시인성이 미흡했음.

○ (엘리베이터) 9개소 중 5개소(55.6%)\*에는 엘리베이터에 시인성이 양호한 반려동물 동반이용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었으나, 나머지 4개소(44.4%)는 해당 안내문이 없었음.

\* 반려동물 이용이 가능한 엘리베이터를 별도로 지정해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이를 기준으로 조사했으며, 반려동물의 엘리베이터 이용규정은 시설 자체 규정별로 다를 수 있음.



## 조사 개요

- 조사대상 : 최근 1년 이내에 반려동물 동반 가능 대형 쇼핑몰 방문경험이 있는 성인 500명
- 조사내용 : 반려동물 동반 가능 대형 쇼핑몰 내 반려견에 의한 이용자 피해·불편 경험, 반려동물 출입 가능 대형 쇼핑몰 관련 인식 등

- (피해·불편경험) 500명 중 308명(61.6%)은 반려견에 의한 피해·불편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나머지 192명(38.4%)은 타인의 반려견을 통해 피해·불편을 직·간접적으로 겪거나 관련 사례를 목격한 것으로 나타남.
- 설문 대상 500명 중 106명(21.2%)이 시설에 출입한 반려견에 의해 '다른 이용자'가 피해·불편을 겪는 것을 목격했고, 62명(12.4%)은 '자신'이, 41명(8.2%)은 '일행'이 피해나 불편을 경험했다고 답변함.(복수응답)

## [ 타인의 반려견에 의한 이용자 피해 · 불편 경험(복수응답) ]

구분	응답수(명)	비율(%)
타인의 반려견에 의해 직접적인 피해나 불편을 겪지 않았고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것을 본 적이 없음	308	61.6
다른 이용자가 타인의 반려견으로 인한 피해 또는 불편을 겪는 것을 본 적이 있음	106	21.2
내가 직접 타인의 반려견으로 인한 피해 또는 불편을 경험한 적이 있음	62	12.4
나의 일행이 타인의 반려견으로 인한 피해 또는 불편을 경험한 적이 있음	41	8.2

- (피해·불편 상세사례) 직·간접적인 피해·불편 사례로는 '반려견이 으르렁대거나 짖어 놀람(피해사례)'과 '개를 무서워해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을 불안해함(불편사례)' 등이 가장 많았음.

## [ 타인의 반려견에 의한 피해 · 불편 사례 (상위 3개) ]

구분	순위	사례	응답수(명)	비율(%)
다른 이용자가 피해나 불편을 겪는 것을 본 적이 있음	피해	1 반려견이 으르렁대거나 짖어 놀람	40	37.7
		2 반려견이 갑자기 달려들어 놀람	29	27.4
		3 반려견이 쫓아와 쫓기거나 도망 다님	15	14.2
	불편	1 개를 무서워해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을 불안해함	55	51.9
		2 영유아나 어린이를 동반하고 있어 개물림 등 안전 사고에 대한 불안함을 호소함	37	34.9
		3 배변활동을 목격하여 불쾌감을 표현함	34	32.1

구분	순위	사례	응답수(명)	비율(%)
내가 직접 피해나 불편을 경험한 적이 있음	피해	1 반려견이 으르렁대거나 짖어 놀람	34	54.8
		2 반려견이 갑자기 달려들어 놀람	15	24.2
		3 반려견이 쫓아와 쫓기거나 도망 다님	9	14.5
	불편	1 개를 무서워해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불안했음	29	46.8
		견주가 반려견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해 불안했음	29	46.8
		2 털 날림 등으로 인해 쇼핑물의 위생이 우려됨	27	43.5
나의 일행이 피해나 불편을 경험한 적이 있음	피해	3 견주가 반려견의 배변 등을 깨끗이 치우지 않아 불쾌감을 느낌	23	37.1
	불편	1 반려견이 으르렁대거나 짖어 놀람	20	48.8
		2 반려견이 갑자기 달려들어 놀람	11	26.8
		3 반려견이 쫓아와 쫓기거나 도망다님	6	14.6
	불편	1 개를 무서워해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을 불안해함	20	48.8
		2 영유아나 어린이를 동반하고 있어 개물림 등 안전 사고에 대한 불안함을 느낌	18	43.9
		3 털 날림 등으로 인해 쇼핑물의 위생을 우려함	17	41.5

\* 복수응답 허용 항목으로, 빈도(명)와 비율(%) 의 총 합계는 실제 설문 응답자의 수와 일치하지 않음.

- ☐ (피해예방을 위한 조치) 조사대상 500명 중 179명(35.8%)이 ‘쇼핑몰을 출입하는 모든 반려견의 입마개 착용 의무화’ 조치가 1순위로 필요하다고 답변함.  
(1순위 응답률 기준)

[ 시설 내 반려견 관련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 ]

순위	구분	빈도(명)	비율(%)
1	쇼핑몰을 출입하는 모든 반려견의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한다	179	35.8
2	견주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이나 캠페인을 실시하여 홍보한다	105	21.0
3	반려견 관련 출입이용안전 기준 관련 안내문을 더 늘린다	75	15.0
4	피해를 발생시킨 견주의 쇼핑물 퇴장 조치 등 강제적 방안을 마련한다	71	14.2
5	쇼핑몰 내에 직원 등을 배치하여 현장 관리를 한다	70	14.0
합계		500	100.0

- ☐ (펫티켓 만족도) 견주의 펫티켓에 대해서는 ‘만족한다’ 는 답변이 187명 (37.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보통(180명, 36.0%)’ , ‘만족하지 않는다 (86명, 17.2%)’ 등의 순이었음.
- ☐ (반려견 허용시설 확대)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쇼핑 시설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보통’ 이 154명(30.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긍정적 (147명, 29.4%)’ , ‘부정적(106명, 21.2%)’ 등의 순이었음.

□ (도입 필요 규정) 해외의 반려동물 출입 허용 쇼핑시설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설규정 중 국내에 우선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500명 중 127명(25.4%)이 ‘어린이 놀이장소 내 반려견 출입 금지’를 1순위로 꼽았음.

○ 다음으로 ‘쇼핑시설 입장 시 광견병 예방접종 기록 등 필수 제출(111명, 22.2%)’, ‘반려견을 통제하는 견주의 나이를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93명, 18.6%)’ 등의 순이었음.(1순위 응답률 기준)

#### [ 국내 우선 도입이 필요한 해외 관련시설 규정 ]

순위	구분	빈도(명)	비율(%)
1	아이들이 놀도록 지정된 장소에 반려견 출입 금지	127	25.4
2	쇼핑시설 입장 시 광견병 예방접종 기록 등 필수 제출	111	22.2
3	반려견을 통제하는 견주의 나이를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	93	18.6
4	견주는 3마리를 초과하는 반려견을 동반할 수 없음	65	13.0
5	반려견의 키나 몸 길이가 약 61cm를 초과하는 경우 에스컬레이터 탑승 금지(엘리베이터 이용)	35	7.0
6	연못이나 분수, 기타 물을 이용한 수경시설물에 반려견 출입 금지	31	6.2
7	반려견 탑승이 가능한 별도의 엘리베이터 마련	21	4.2
8	반려견의 에스컬레이터 이용 금지	17	3.4
합계		500	100.0

## 4

### 반려동물 동반 가능 대형 쇼핑센터 이용실태조사

#### 조사 개요

- 조사대상 : 서울·경기 내 반려동물 동반 이용이 가능한 대형 쇼핑센터 9개소를 방문한 반려견 217마리\* 및 해당 반려견의 견주
- 조사내용 : 목줄(리드줄)·입마개 착용 여부 및 기타 펫티켓 준수 여부 등

□ (목줄 착용 여부) 217마리 중 211마리(97.2%)가 목줄을 착용하고 있었고, 나머지 6마리(2.8%)\*는 목줄을 착용하지 않음.

\* 6마리 중 5마리는 안겨 있거나 무릎에 올려져 있었으며, 1마리는 바닥에 풀려 있었음.

□ (입마개 유무) 217마리(100.0%) 모두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음.

□ (펫티켓 미준수 사례) 조사대상 217마리 중 25마리(11.5%)가 어린이에 의해 관리 통제되고 있거나 목줄을 과도하게 길게 늘어뜨려 이용하는 등 펫티켓을 준수하지 않음.

[ 시설 내 반려견 동반 이용 펫티켓 미준수 사례 ]

구분	반려견 수
어린이가 반려견을 통제	6
목줄을 과도하게 길게 늘어뜨려 이용	4
상점 출입규정 위반	4
식품관련시설 접근 및 이용	3
반려견 방치	3
휴게시설 규정 위반	3
수경시설 접근	1
에스컬레이터 직접 탑승	1
합계	25(11.5%)/217

\* 조사 대상 대형 쇼핑몰 9개소를 방문한 반려견 217마리 대상



## < 붙임 2 > 대형 쇼핑센터의 안전한 반려동물 동반을 위한 안내 가이드라인

### 1 시설 내 동반이 허용되는 반려견의 조건

- 동물보호법에 의해 지정된 맹견 및 타인·타견종에 대해 공격성이 강한 반려견 출입을 제한함.
- 광견병 예방접종 및 동물등록이 완료된 반려견에 한하여 입장을 허용함.
- 1명의 견주는 3마리 이상의 반려견을 동시에 동반하여 출입할 수 없음.

### 2 반려견의 동반 형태

- 동반 반려견은 이동장치(캐리어 등) 밖에 있을 때 항상 목줄(리드줄)을 채워야 하며, 유모차 이용 시 이탈 우려가 있는 반려견은 유모차 내부 고리와 목줄(리드줄)이 연결되어 있어야 함.
- 타인·타견종에 대해 공격성이 강한 반려견 출입 시 입마개 착용을 권장함.  
(※시설 운영규정에 따라 공격성이 강한 반려견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 동 항목 적용 권장)
- 목줄(리드줄) 착용 시 줄의 길이는 1.5m이하로 제한하며, 리드줄이 늘어나는 제품은 늘어나지 않도록 줄의 길이를 고정해야 함.

### 3 반려견 동반 견주의 자격 및 주요 의무사항

- 반려견을 직접 통제·관리하는 견주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함.
- 반려견을 동반한 견주는 반려견에 대한 상시 주의·보호·관리 의무가 있음.
- 반려견을 기둥·의자 등의 시설물에 장시간 묶어 고정해 두거나 목줄(리드줄)의 손잡이, 홀더를 바닥에 내려놓아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함.
- 견주는 동반 반려견의 배설물 발생 시 이를 즉시 처리해야 함.

### 4 반려견 동반 시의 시설 이용 안내

- 식당 등을 포함한 일부 매장은 매장의 정책에 따라 반려견 출입이 금지될 수 있음.
- 일반 이용자의 휴식 및 음식 섭취를 위한 테이블·휴게의자에 반려견을 올려놓아서는 안 됨.
- 분수·호수 등 물이 있는 수경시설의 반려견 이용을 제한함.
- 화장실 등에서 반려견을 씻기는 행위를 금지함.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놀이 공간의 반려견 출입·이용을 금지함.
- 에스컬레이터 이용 시 안전을 위해 반려견을 안은 상태로 이동하고, 엘리베이터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벽 쪽으로 위치시켜 반려견과 타 이용자의 접촉을 최소화할 것

### 5 반려동물 동반 관련 시설 규정 미이행 시 조치사항

-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거나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 동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반려견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발생 시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
- 반려견 관련 분쟁·안전사고 발생 시, 반려견과 반려견 동반자는 쇼핑시설의 퇴거를 요청받을 수 있음.

### 6 반려동물 비동반자 대상 팻티켓 안내

- 반려동물 비동반자는 견주의 동의 없이 시설 내 반려견을 만지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됨.

### 7 반려동물 관련 안전사고 대처를 위한 시설 관리부서 연락처 명시

- 반려동물 관련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피해구제·분쟁해결을 위한 시설 관리부서 연락처 명시(필요 시 대응방법 상세 명시)